

서남대 해결 방안 찾았다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남원발전연구원 설립... 전북대·시의회 등과 공동 협약

남원시는 지난 2018년 2월 28일에 최종 폐교, 현재 청산 절차 중인 서남대가 지역에서 새롭게 거듭날 방안을 찾았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최경식 시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서남대 문제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환담을 갖는데 이어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원 설립을 위한 전북대학교, 남원시, 남원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등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대학교, 남원시, 남원시의회, 지역국회의원 등이 지역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중심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상호협력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이후 국회의원, 전평기 의장 등이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골자는 폐교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활용,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설치하고, 대학의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자 추진 중인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가칭)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실행방안 마련이다.

특히 전북대가 최근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선정돼 지역소멸을 막고 대학 혁신과 지역 발전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북대 남원캠퍼스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관련 협약은 RISA사업 연계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이번 협약사항에는 지역 혁신사업인 UAM, 드론 항공 등 미래 수송기기 분야의 연구개발(R&D) 기반 마련과 생태계 구축에 대한 상호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농생명 기반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및 스마트팜토리 등 스마트 농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부분과 함께 실행방안에 재정투자 등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실무협약 체결로 추진할 부분도 담겼다. /남원=김기두기자

순창 백암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선정 13억 확보

국가균형발전위·농식품부 주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최종 선정

순창군은 30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에 팔덕면 백암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도록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확충, 주민 안전·위생, 주민여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팔덕면 백암마을 주민들과 협업하기 위해 사전 설명회를 거쳐 추진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사업내용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 회의를 통해 공모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선정된 팔덕면 백암마을은 방치된 폐가가 13호, 슬레이트 비율이 88%,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73% 등 노후주택과 각종 기반 시설이 부족

해 재난, 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해 안전난간 설치, 가로등 교체, 마을화관 앞 주차장 설치 등 기반 시설 확충과 담장정비,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마을의 생활·위생 환경 정비 추진으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옥정호 환경친화적 관광지 속도전

임실군이 천만 관광 시대를 열 핵심 거점 관광지인 옥정호를 환경친화적 관광지로 만들어가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 '섬진강댐 및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옥정호 친환경 활용계획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옥정호 친환경 활용계획은 지난해 4월부터 전북연구원을 통해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보고회는 심민 군수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구상 및 활용구역(안)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섬진강댐은 지난 1965년 전국 최초 다목적댐으로 건설됐으나 댐 건설 이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순환도로도 개설되지 않아 그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탐방객들의 고충이 많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으로 지난 2015년 임실군 수역을 비



롯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발전의 전반기가 도래하고 환경친화적 개발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는 3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지방자치행정경영부문상을 수상,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정철근 중앙일보S 대표 이순택 남원부시장

'문화·미래산업 도약하는 남원'

남원시, 창조경영 자치행정경영부문상 수상

남원시는 30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지방자치행정경영부문상을 수상,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중앙일보S가 주최하고 주요 정부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후원, 국가경제발전에도 노력하는 기업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남원시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시정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시정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분야별 로드맵 확정, 세부실행계획 수립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미래먹거리 육성 기반을 다진 부분 등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했다. /남원=김기두기자

구체적으로는 △미래신성장산업 육성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조성 △친환경미래 농업으로 6차산업 선도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시정목표를 적극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세부 실행의 경우,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기반 마련 부분에서는 농생명 바이오 6차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국내 9개 산·학·연과 공촌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점과 오는 10월에 개최될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 국내 최초 유치에 통해 200억원의 경제효과는 물론 남원을 항공산업의 메카로 이끈 부분 등이 호평받았다. /남원=김기두기자

임실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작

임실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도래함에 따라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유치할 계절근로자는 총 152명으로 베트남 푸엔깡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계절근로자 36명이 4월 말쯤 입국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 입국 후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오수관촌농협)와 농가에 배치된다.

심민 군수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으로 유치해 조금이나마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71명 또한 비자 발급이 완료되는 대로 농번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개별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베트남 푸엔깡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계절근로자 36명이 4월 말쯤 입국계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 입국 후 마약 검사,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주체(오수관촌농협)와 농가에 배치된다.

심민 군수는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처음으로 유치해 조금이나마 농번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의회,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30일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할 7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강인식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으로 결산검사는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검사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전평기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며, "전문적인 시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인식 대표위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낭비된 사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시, 청년창업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첫 개시

남원시가 3월부터 청년창업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대상자 모집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컨설팅은 마케팅, 경영진단, 점포운영, 창업 전반에 대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 컨설턴트와 1:1 교육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컨설팅 교육을 이수하고 창업할 경우, 시에서 최대 5천만원의 금융특례 보증과 이차보전금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이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사업자도 컨설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 첫 해인 금년에는 10명 정도의 대상자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